

만남

08

2018

통권 535호

특별기획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특집 | 성경적 결혼



대한예수교
정로회
영락교회



남북분단과 남남분열의 벽을 허물기 위한 기도와 헌신은 믿음의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십자가 사랑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있다.

- 지난 6월 24일(주일), 북한선교대회 행사 중 교회모형 지붕에 복음통일 기도문을 적는 김운성 위임목사

만남

2018년 8월호 통권 535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8.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표지설명

베드로부가
영락기도원에서 가진
여름수련회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이자영 성도
(베드로부 21기)

이달의 말씀 02 · 예수님의 휴가 | 김운성

- 특별기획**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 05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 하승희
 - 06 · 겸손하고 지혜로운 전도자를 소망합니다 | 임민섭
 - 08 · 잠자던 영혼을 다시 살렸습니다! | 장재영
 - 10 · 교육부 징검다리 연계사업 좌담회 | 박진현

특집 성경적 결혼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 16 · 성경적 결혼 | 최한윤
 - 19 · 청년기독인과 결혼 | 박지운



- 영락지금
- 너 괜찮아?
- 여름수련회 소식
- 24 · 결혼, 꼭 해야 하나요?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 29 · 찾아가서 나누는 기쁨 | 백현준
 - 32 ·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 강은진·이미혜·설지은



- 세계선교
- 국내선교
- 북한선교
- 35 · 나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 목만수
 - 38 · 삶 속에서 전도하기 | 김재을
 - 40 · 북녘땅의 변화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김주현



- 문화광장
- 영락의 울타리
- 43 · 하나님이 빚으신 세상, 화폭에서 만난다 | 박선이
 - 48 · 2018년 「만남」 설문조사
“1021분에게 귀 기울여 봅니다” | 최판곤
 - 52 ·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 최윤미



- 사랑의 거자씨
- 57 ·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보금자리 | 박진현

- 교회소식
- 61 · 특별새벽기도회 등
 - 64 · 새가족 환영 / 세례·입교 축하
 - 66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 야곱의 우물가
 - 67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 6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다른그림찾기
 - 69 · 6월호 컬러링 콘테스트 당선작



예수님의 휴가

김운성 위임목사

우리는 지금 한여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덥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똑똑함의 배후에는 세상을 정확하게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게 하셨다면 여름옷을 꺼내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장만한 사람들은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여름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덕에 삽니다. 그것도 모르는 혀똑똑이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여름은 휴가가 집중되는 계절입니다. 요즘이 휴가의 절정이지요. 만나는 이들의 인사에도 휴가가 주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목사님 휴가는 언제부터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휴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쉬어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소위 믿음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밤낮없이 뛰어다닌다고 되겠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과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반대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자. 예수님께서 언제 휴가 가신 것 봤나?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달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역시 믿음의 생각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다 믿음의 동기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뵙는 예수님께서는 휴가도 없이 달리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휴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둘씩 파송되어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왔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일행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휴가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휴가는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 방해꾼은 찾아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도보로 따라왔는데,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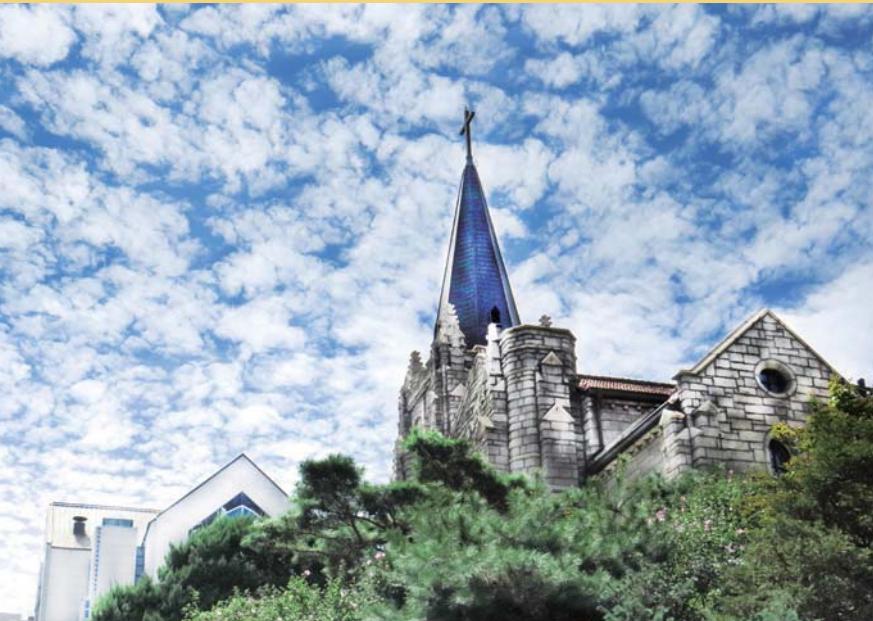
이 때 예수님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무리에 질려서 뱃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 또 찾아왔구나. 뱃머리를 돌려 저 사람들이 오지 못할 곳으로 가자.”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기다리는 그들에게 뱃머리를 붙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조금도 무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휴가를 포기하신 그 자리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적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무더위와 습기, 그리고 높은 불쾌지수를 동반하고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쉬든, 일하든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무리로 인해 휴식을 포기하신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올 여름 쉬든, 쉬지 않고 일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쉽다면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길 원하고, 일을 한다면 오병이어의 열매를 경험하는 멋진 여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만남**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왼쪽부터 박남진 장로, 박홍준 장로, 김재완 장로, 박진현 집사(취재기자), 나선환 장로, 이종근 장로

사진 (위)이미혜 부선임기자 (아래)박홍기 선임기자

‘교회생활을 넘어 신앙생활의 본질로’ 온 교우가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듯이, 주의 몸된 교회도 구름(왼쪽 사진)으로 감싸시며 ‘주의 은혜’로 친히 덮어주신다고 온 교우가 요즘 여기저기서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들을 이달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코너에 담았다. ① 새가족부(부장 장병건 장로)가 정성껏 섬긴 새교우 간증이 실려 있다. ②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한 훈련생 간증이 담겨 있다. 특히 타교회 교우 간증은 교회 담장을 넘어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③ 청소년총에서부터 청년총을 거쳐 장년총에 이르기까지 ‘징검다리-연계 사역’을 통해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자 교육부 및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의 유관 부서장들(왼쪽 아래 사진)이 지난 7월 1일(주일) 홍보출판부 사무실에서 가진 좌담회 소식을 담았다. 여기서 「만남」 청년 편집진이 기획한 2030기독청년을 위한 SNS프로그램, 「만남 클라우드」 제안도 있었다.

1. 새가족부 간증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승희 성도
안양·수원 교구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오빠, 동생과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는 영락교회에 다니는 남편과 지난 4월에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웬지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불편하여 직장과 교회뿐 아니라 집도 싫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이 따분하기 만 하던 어느 날, 출근길에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려는 순간, 사람들의 다급한 소리에 “뭐지?” 왼쪽을 보는 순간 시내 버스가 저를 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버스가 덮치는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버스에 치일 때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코끼리가 몸을 짓누르는 듯 전신으로 밀려오는 고통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가 찢어져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약을 먹고 숨을 쉬긴 했지만,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여 검사하니 척추뼈가 압박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암송했던 말씀이 나중에는 마음 깊이 믿어졌습니다. 육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삶을 채찍질하셨구나. 지금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육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같이 어리석고 죄 많은 죄인을 “너는 내 것(이사야 43장 1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슴 벅차고 기쁜 나머지 어머니와 동생에게 “어떡해,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것이래”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영락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래 승희야 참 잘하고 있어”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날**

2. 전도폭발훈련 간증문(1)

겸손하고 지혜로운 전도자를 소망합니다

임민섭 집사
강남교구
31기 전도폭발훈련
3그룹 12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예배 자리와 성경공부 자리 를 지키며 최근 3년간 1000여 편의 설교를 찾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초겨울,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터널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저의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원하시나요?”

그때 전도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한 일도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올해 2월 11일 주일, 그 날은 새벽기도부터 1, 2, 3, 4, 5부 예배와 친양예배까지 7번의 예배를 모두 드린 날이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마친 후 연이어 김옥녀 총무님과 이정순 팀장님을 만나 31기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친절한 분들의 기도에 대한 감사함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오랜 그 기도제목과 관련하여 얼마 후에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웠던 것은 젊은 시절

에 운동하다 다친 통증으로 오랜 기간 경직된 표정으로 살아 온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할 자격이 없어 보일 것만 같은 저였지만 저의 부족함을 모두 알고 계실 하나님을 믿고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히하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개근하겠습니다.

둘째, 초반에는 암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후 6주간 매주 목·금·토 2시간씩 할애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스피드 조절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는 준비되고 숙련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복음제시에 최대한 참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고 개인전도 또는 팀 전도 60회 이상 참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감사하게도 3가지 모두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기억납니다. 물질적 도움을 원하시며 다가오신 어떤 분에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



왼쪽부터 임성기 전도자, 임민섭 전도자(필자), 송진업 전도자

습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자신이 젊었을 때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술로 인한 몸의 왼쪽 부분 마비로 지난 지 20년이 되어 간다며 삶의 소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복음을 전하여 결신기도까지 했는데, 그분도 저도 활짝 웃으며 잠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육개장을 좋아하신다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헤어질 때 그만큼을 선물의 의미로 드리고 왔습니다.

또한 임성기 전도자님의 처제 분께 전도자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락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렸던 팀 관계전도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선물했을 때 그분이 기뻐하셨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하던 제가 신비롭게도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평안하고 기쁘게 여기게 됐습니다.

몸을 다친 이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려면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등의 신앙생활을 더욱 충실히 지켜가려 합니다.

12조 임성기 전도자님을 통해 관계전도를 경험하고 윤극명 전도자님과 정세영 전도자님을 통해 병원전도를 경험하면서 특별한 은혜 체험의 감사함을 품고 서울역 노방전도와 같은 사역에까지 확대하고 싶습니다(사랑과 관심의 양육에도 마음을 두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1~2회 병원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으로 본을 보이신 3그룹 11명의 전도자님과 31기 전도폭발훈련을 섬기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에 신중하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2. 전도폭발훈련 간증문(2)

잠자던 영혼을 다시 살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신앙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 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 공직자로 직장을 평계로 교회를 떠나 15년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권고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게 세상은 지뢰밭이요 출세는 덫없는 죄 악의 지름길이었는데 세상을 끌어안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저는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쓸모없는 제가 무엇이기에 다시 살려 주십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날마다 새벽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각성하면서 차츰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아내를 통해 영락교회 전도폭발 훈련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훈련받아 은혜를 입었기에 제게도 권유한 것입니다. 저를 위한 아내의 기도를 알기에 거부감은 없었으며 훈련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도 생겼습니다. 40분 분량의 복음제시문 암송이 벅찼지만 도전이고 과제였습니다. 암송에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했고 결국 복음제시문은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녹음기나 로봇처럼 복음제시문을 암송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들어줄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할까?’ 인간적인 생각의 의구심으로 눈치 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생각들이 말끔히 제거됐습



장재영 집사
삼락교회
31기 전도폭발훈련 제8그룹장

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전하는 복음제시는 강력한 무기가 됐고 능력이 됐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의 특징은 양육과 성장입니다. 1단계 훈련을 마치면 훈련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훈련자 역할에 주저함이 있었지만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2단계부터 4단계까지 훈련자로 섬겼던 훈련생에 장로님도, 저보다 나이 많은 은퇴자도 계셨습니다. 나이·직업·성별에 상관없이 처음 만났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동질감이 컸습니다. 함께 다녔던 병원·공원에서 훈련생의 복음제시가 늘어갈수록 훈련자로 성장하는 훈련생의 모습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에 수원에서 일할 때 3·4 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병점역 부근에 교도소 출소 여성 3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은 가족에게도 외면당해 오갈 데 없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들과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며, 제가 속한 그룹원 전체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들에게 새 소망과 용기를 갖게 했고 특히 기적 같은 은혜가 45세

의 한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인신매매로 끌려가 상습매춘에 이르는 만신창이가 됐고, 제대로 걷지 못할 병으로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전도로 주님을 영접했고, 독지가의 후원으로 두 다리 수술과 재활까지 이룬 기적을 봤습니다. 삶의 밑바닥, 끝자락에서도 복음으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이번 31기 5단계에서 그룹장을 맡았습니다. 그룹장은 훈련자이면서도 그 이상의 책임과 성실성 및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처음은 그룹장으로서 좌충우돌하고 착오가 많았지만 스태프들과 그룹장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훈련자와 훈련생의 화합이 돋보이고 화목한 모임이 참 좋았습니다. 날마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룹톡으로 간절한 중보기도 요청과 함께 자발적으로 전도현장을 다니며 전도 상황을 공유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사랑하여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맛보게 하시는지 그 신비로운 활동에 감탄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수고했던 그룹원 모든 분들에게 존

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단계별 강의에서는 타종교와의 비교가 전도에 유익했는데, 저는 이단 중 신천지 발표를 맡았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공부 차원에서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한 덕분에 신천지의 이단성을 파악했습니다. 신천지는 주님을 부인하며 자의적 비유 해석으로 종말이 없고, 교주는 물론 자신들도 이 땅에서 육체적 사망이 없다고 믿는다니 그 무지몽매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구주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감격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 단지 개인 차원에만 머물고 만다면 이기적인 삶이요 성장과 발전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전도폭발 훈련은 평신도 신앙인의 필수 코스요 으뜸가는 훈련으로, 영혼을 살리고 연단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전도폭발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과 영락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① 장재영 집사(필자)가 다리관절염으로 절망중인 여성에게 전도하는 모습



② 영락교회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한 그룹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여성들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모습

3. 교육부 징검다리 연계사역 좌담회

2030청년을 세워가는 연계사역

교육부는 올해의 중점 사역을 각 부서 간 유대강화와 연계프로그램 ‘징검다리-연계사역’으로 정하고, 교육부 내 각 부서 간 ‘졸업과 진학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징검다리처럼 잘 연계’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7월 1일(주일) 홍보출판부 사무실에서 교육부내 ‘징검다리-연계사역’ 관련한 부서의 부서장들이 모여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란 큰 주제 아래 징검다리-연계사역에 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보출판부는 2030기독청년을 위한 SNS프로그램 「만남클라우드」를 제안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우리 교육부가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각 단위 부서 내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의 연계 사역을 잘 추진하여 ‘졸업과 진학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잃어버리는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정 중에 많은 단위 부서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징검다리-연계사역’ 관련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부서 간 연계사역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교육부를 졸업한 이후에 이를테면 장년부와 같은 교회 내 다른 부서와 잘 연계하여 그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

영, 유아부에서 시작된 교육부의 신앙교육이 장기적으로 청년부 이후 새롭게 연계되는 부서가 신설 된다면, 현재 교육부의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 발전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만남」 편집진이 특별기획한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기획취지와 부합하기도 해서

유관 여러 부서장들을 모시고 교육부 부서 간 연계사역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자 오늘 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종근 장로(고등부 부장)

‘징검다리 연계사역’은 고등부도 4~5년 전부터 많이 고민해온 문제다. 왜냐하면 교회의 학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반면 일반 대학의 학기는 3월부터 시작이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 우리 고3 학생들이 12월 말에 고등부를 졸업하고, 1월이 되면 고등부의 교적은 자동으로 대학부로 넘어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간인 1월, 2월 사이에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결정이 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과정의 고민들을 고등부 선생님이든 대학부 선배든 어느 곳에서도 대화하기 어려운 공백상태에 놓인다. 그 과정에서 고등부 졸업 학생들 중 약 30% 정도만 대학부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자칫 교회 내에서 방황하기 쉬운 시기이다.

많은 고민 끝에 고등부에서는 이 ‘2개월의 시간 동안 고등부 졸업예정자들을 고등부예배에 임시로 남겨 두고 싶다’고 교육부와 대학부에 제안했다. 감사하게도 대학부에서 흔쾌히 응해주셨고, 고3 졸업예정자들에게 현 고등부 예배를 2개월 동안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대학부가 고등부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매주 고등부에 오셔서 소그룹 활동을 직접 진행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자연스럽게 대학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효과도 생겼다.

그 결과 약 90%의 학생들이 대학부로 진학하는 감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기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올해 처음 진행 되었지만, 향후 전 교육부서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는 아이들의 학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이 교육부 전체 부서로 확장되면 좋겠다.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사실 고등부에서 대학부로의 연계문제가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학부의 수고와 고등부의 노력이 2개월간의 시간적 공백 문제를 매우 치료하고 유익하게 연합하여 연계하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감사드린다. 이같이 각 부서 간 진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밖에도 혹시 대학진학에 실패해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베드로부’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대학부의 입장도 궁금하다.



▶ 박홍준 장로(대학부 부장)

실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이 간단한 문제 가 아니다. 입시제도 자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대학부는 매년 2월초에 동계수련회가 있어서, 예전 같으면 대학부에 새로 올라오는 신입생들과 이 기간 동안 함께 친교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고했다. 올해 고등부-대학부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입생들이 고등부에 약 2개월 동안 더 머물게 되었다. 우리 대학부는 ‘전적으로 고등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계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

이제 고등부 학생들은 3월초에 대학부로 올라오게 된다. 예년의 대학부 1년 출석그래프를 보면 1, 2월에 학생들이 가장 많고, 개학을 맞는 3월부터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간다.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바뀐 학기제도 내에서 신입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해, 이 기간 동안 대학부는 고등부를 찾아가서 팀별로 피자, 치킨도 사주며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아직 소속은 고등부 학생이지만 이 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대학부 진학 예정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가길 바란다.

다른 한편 고등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명단과 실제 출석인원이 달라 반 편성과정에서 어려움도 있다. 각 부서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부서를 배려한 보다 현실적인 제적인원 데이터를 넘겨주면 학생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다.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중등부도 소년부에서 신입생이 올라와야 하고, 중3학생들은 또 고등부로 올려 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발전적인 의견이 있을 것 같다.



김재완 장로(중등부 부장)

사실 생각해보면 과연 중등부도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중등부는 소년부 졸업 후 본인이 선택해서 오기보다, 거의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대, Cebc 등 특활반 친구끼리 서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다. 특활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상 소년부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끼리는 잘 통하는데, 잘 모르는 아이들과는 다소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Cebc는 Cebc끼리만 너무 가깝게 지내게 되어, 다른 학생들과의 친교나 어울림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중2가 되면 사춘기라 그런지 신앙적으로 다소 방황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주보만 받아서 사라지는 아이들도 가끔 있다. 그러다보니 중2학년 시기는 1년의 온도차가 크다. 연초에는 학생들이 많다가 연말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다행히 중등부 3학년부터는 교사나 교역자들과 밀접한 대화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부와의 좋은 연계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잘 관리해주면 중3에서 고등부 진학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중등부에서 고등부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혹시 중3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고등부에서 기획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종근 장로(고등부 부장)

오리엔테이션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확실히 크다. 중학생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 나온다면, 고등학생은 친구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시기이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단시간 내에 친구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그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안타깝다.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한편 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갈 때, 친구가 안 가면 자신도 안 가려하기 때문에 이 단계의 연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대학부와 청년부의 연계프로그램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다.

박홍준 장로(대학부 부장)

청년부에서 요청이 와서 함께 진행했다. 청년부 내에서 직업이나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대학부 학생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함께 경험 등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가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박남진 장로(교육부장)

대단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해는 다소 미약했더라도 내년부터는 보다 진전 시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주면 좋겠다. 특히 올해 청년부가 하계봉사를 할 때 대학부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진행방안에 대해서 청년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나선환 장로(청년부 부장)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년부는 대학부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대학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방법과 직장현실 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청년부 선배들이 답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소중한 협동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청년부가 강원도 태백지역 봉사를 갔었는데, 태백지역에 의외로 청년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 서울로 유학오는 학생들을 영락교회로 전도하기도 했다. 청년부와 대학부가 연합하여 하계선교봉사 및 ‘청소년 사역’도 함께 했으면 한다. 두 부서가 함께 봉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연계사역의 롤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박홍준 장로(대학부 부장)

부서 간 연계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 ‘보내는 부서의 입장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고등부와 대학부가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고

등부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반영해서 대학부가 어떤 부분의 도움을 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년부와의 연계사역에서는 대학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주시고 청년부 사역에 대학부가 참여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고 싶다. 큰 뜻에서 청년부의 여름사역에 대학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장로(고등부 부장)

올해 초 고등부 졸업생들을 고등부 겨울수련회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대학부수련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정책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이었다.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이렇듯 학생들의 연계를 위해 양쪽 부서가 서로 반보씩만 양보하는 미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박남진 장로(교육부 부장)

사실 다른 부서와 달리 청년부는 성인들이다. 대학생과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하다. 취업도 해야 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활동도 해야 한다. 성장과정에서 부서가 바뀌면서 각 부서 구성원의 성격도 달라지는데, 실제 청년부를 졸업하고도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부를 졸업한 젊은이들을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를 넘어 신앙에 잘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35세 이후 청년부를 졸업한 후에 바로 장년부로 가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자신

들이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든 느낌이 들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청년부 이후에 해당되는 ‘부부청년 선교회’나 ‘2030 젊은이공부반’ 등 청년부와 장년부의 중간 연계사역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홍보출판부 「만남」 청년 편집진들이 기획한 ‘만남클라우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 일의 선임위원을 맡고 있는 박종하 집사가 제안하겠다.

▶ 박종하 집사(홍보출판부
만남클라우드팀 선임위원)

기독인 젊은 세대 이탈은 세 계적 현상이나, 이에 대한 통감과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 12월부터 「만남」 청년 편집진은 그동안 관련 워크숍 및 수차례 실무 미팅을 통하여 ‘만남클라우드’ 기획안을 수립하였

고, IT미디어부와 협조하여 IT공동활용 및 협업을 논의해왔으며, 세부 카테고리별로 내용을 구체화 해왔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만남」 3월호 부임인터뷰에서 “SNS도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젊은 세대를 위한 SNS-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후 전 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추진 방향은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전달 매체를 지향한다는 데에 있다. 주요 카테고리는 ‘야곱의 우물’(기독교 세계관), ‘말씀그림 묵상’, ‘보이고 들리는 영락 라디오’(보들라), ‘영락 위키’, ‘이웃 사랑’, ‘영락미디어’ 등이다. 그 가운데 ‘야곱의 우물’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여정 안내와 나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이 홍보출판부 현재 사



역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전 교회차원에서 론칭(launching)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론칭 TF의 주요 사역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교회 내 영역별 기독전문가Pool 구축 사역. 이들 전문영역 리더 간 연계 및 세대 간 연계 구축 사역. 마지막으로 이들 양대 구축을 통하여, 「만남클라우드」의 ‘야곱의 우물’과 같은 SNS공간에서 우선 이들 기독전문가들이 주로 기독청년들의 정직한 질문에 대해 정직한 응답을 해가면서 최고의 기독콘텐츠를 형성 및 공유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및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신 개념 기독SNS공간, 「만남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역이다.

박남진 장로(교육부부장)

참 좋은 내용이다. 홍보출판부「만남」청년 편집진들이 기획한 '만남클라우드'가 영락 청년들의 열린 소통과 교육부 연계사역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선환 장로(청년부부장)

우리 교회는 35세가 되면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는데, 사실 그 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다. 갑자기 남선교회에 가입도 어색하고, 장년부로 가기도 조금 일러 보인다.

그래서 금년에 '로뎀나무반'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활동을 한다. '영성반' '일성반' 외에도 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운영하는 등 '로뎀나무반' 안에 그룹별로 자기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게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서로 강의도 하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 주는 모습이 매우 유익해 보인다.

35세 이상의 젊은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청년2부를 만들어서 서로 은혜와 친교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남선교회/4여전도회 등으로 연계시켜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재완 장로(중등부부장)

우리 교회 특성상 대학부와 청년부의 성격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젊은이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부 주관의 청년 예배로 회복시켜주면 젊은이 예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가능한 청년부 예배는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그룹 별로 나눔과 친교, 청년회 활동부서를 통한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의 시간을 활발하게 갖는 것이 젊은이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박남진 장로(교육부부장)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는 구조적으로 보면 허리이다.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듯이 대학생, 2030 청년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영락 2030클라우드'가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졸업한 영락의 젊은이들이 장년부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내 각 부서에 흡수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가는 연계사역을 담당할 새로운 교육부서의 필요성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좌담회를 마친다. **만남**

특집 //

성경적 결혼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적 결혼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청년기독인과 결혼

성경적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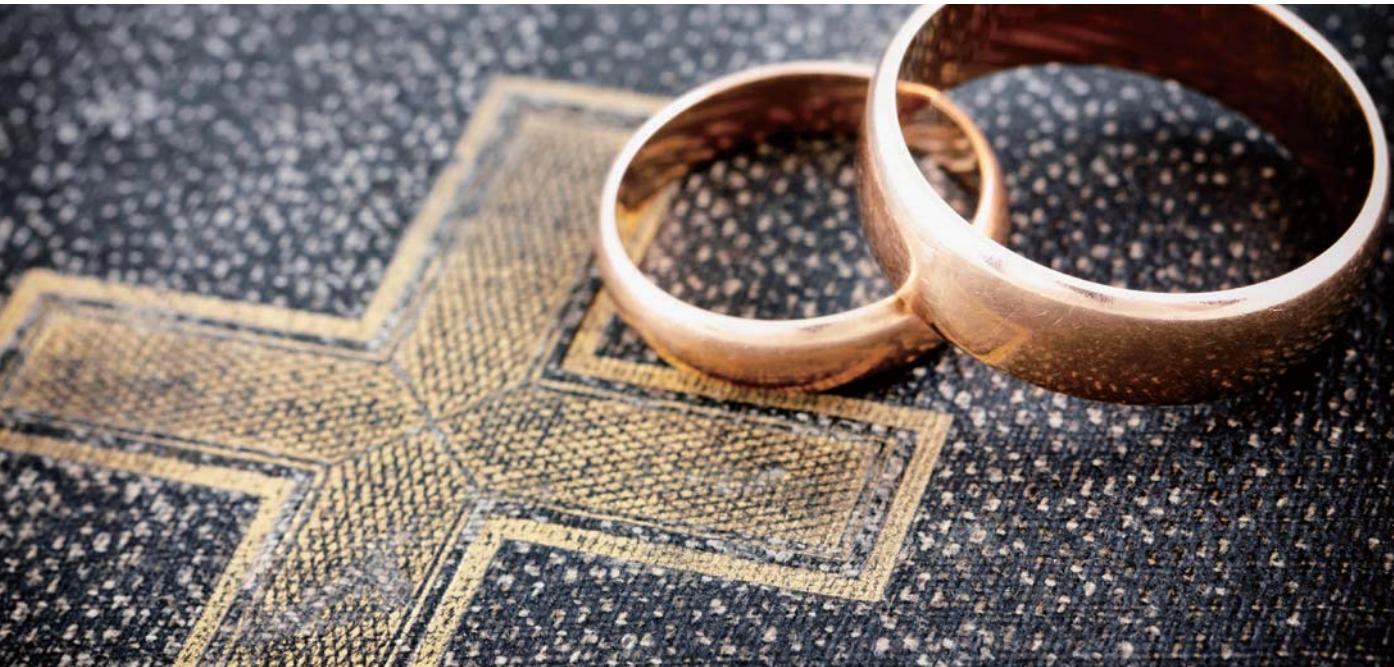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설레고 기쁜 날이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야기 합니다. 여러 경험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은 분명 설렘과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근거를 사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치관들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을 단지 사람들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권면과 축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혼예식에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0:6-9의 말씀은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고 읽히지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필자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한윤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임마누엘찬양대



돕는 배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서로에게 돋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돋는 배필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도와주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돋는 자의 역할은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나 만큼은 서로를 믿어주는 돋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

다. 그로 인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채워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돋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남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가정의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갖지 않아도 되었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막연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됨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시작과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예식에 있어서 그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새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 누구보다 기도와 헌신으로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분리는 시작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부모님을 이해하며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책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부부가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함은 하나님됨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신앙관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일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보면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됨의 삶을 이어갈지 이야기하며 나누는 삶이 필요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됨은 그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의 하나님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됨을 이어가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도움을 주는 자임을 기억하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됨의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설렘의 시작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위에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만남**



청년기독인과 결혼

-가정,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



박지운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전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교제 해오던 청년이 혼기가 차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다리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그 청년이 행복해 보이기는커녕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더군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제해온지라 서로의 장단점도 잘 알고, 같이 선교도 가고 성경공부도 같이 하는 등 신앙의 동반자로서 부족함이 없음은 알겠는데, 결혼하려는 상대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생 일대의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혼이 막상 눈앞에 닥치니 걱정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분이 있다면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직 교제하는 분 없이 기도하는 중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상담하러 왔던 그 청년이 결혼 전에 이런 고민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결혼한 후에, 성격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을 겪은 후에 배우자가 바로



‘그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어딘가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 참된 사랑을 찾았다는 핑계로 불륜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바로 ‘그 사람’인지 알아챌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한눈에 운명적인 상대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한 남자청년이 어느 신실한 자매를 보고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자 여자청년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웃지 못할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합니다

흔히 사랑해야 결혼한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씹게 되고, 인류가 자녀를 낳고 종족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조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원인)에 결혼이라는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

하십시오. 결혼의 전제조건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결혼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제하여서, 혹은 소개로 만나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동행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결혼에 있어서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입니다. 청년세대가 결혼이 어려워지는 까닭이 직장문제와 집 문제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독청년들도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 청년들과 같이 신세한탄만 하는 경우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기독청년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실을 너무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도리어 허상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결혼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교우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혼을 권유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던 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즐겁게 하지 못하고 근근이 힘겹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짹지어 주신 배우자 일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게 답변할 수도, 답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그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오해하시는 마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라고 단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살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하여 짹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참으로 아름답고 좋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아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제야 사람

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즉, 아담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만으로도 창조의 목적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짹을 이루어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우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따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의심할 바 없이 결혼 초기지요. 그 이후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 갈등도 일어나고 남편은 치열한 정글 같은 사회생활에서 생존을 위해 살다가, 또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로 부름 받은 부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즉, 그 어느 누구에게나 결혼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행여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적과의 동침’이 되어 버린다면 인생의 다른 곳에서 그 어떤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런 결혼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 삶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시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책과 강의들, 조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만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보너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목적은 결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에서는 선행을 하고 품위를 지키고 존경을 받는 분이 가정에서는 폭언을 내뱉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등한시 한다면 어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야 할 사람이 남편과 아내요, 자녀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화성인 남자를, 혹은 금성인 여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용납,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며 사랑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행복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식상한 표현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가정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남**



tip1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까요? 키는 몇이고 직업은 어떠하고, 외모는, 학력은, 가정은… 성격은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적이냐고,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하여 저는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속으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원하면서 기도만 거룩하게 한다면 그 어찌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욕망들을 하나씩 가지 치며 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승부하며 ‘이 기준 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양복 나루터의 야곱처럼 환도뼈 가 부러질 정도의 격렬한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최선의 복된 삶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주님 뜻대로!’

tip2

질문을 반대로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반대로 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신앙적인 기준에 비춰서 명확한 반대의 이유가 없다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결단입니다. 때가 채지만, 아직 자신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혼, 꼭 해야 하나요?

영락교회 2030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2009년 6월, 전국 곳곳의 안방에서 ‘결혼 못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40대가 되도록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며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동시대 다른 방송사에서 방영한 시청률 40%의 대작과 방영시기가 맞물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이미 일본에서 2006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원작은 방영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비혼’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장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긴 ‘미혼’과 구별되는 ‘비혼’은 온전히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는 독신의 삶을 뜻합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더 이상 비혼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의 입에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며, 이미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굳건히 발 디디고 살아온 대다수의 장년층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흐름일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가정의 만남이며, 새로운 세대의 탄생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축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탐탁치 않은 시선만 보내기에 비혼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있고, 이제 이들이 왜, 어떤 배경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락의 많은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비혼. 과연 영락의 20대, 30대 청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락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결혼은 꼭 해야 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준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이하 표기된 모든 이름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 큰 고민은 없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결혼 후 함께한 두 달은 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결혼을 선물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영락(28세, 기혼)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위안을 받기도, 걱정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차가워졌다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나눈 상대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락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은 복집하거나 심각한 담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위 글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연애의 감정에서 결혼이라는 형태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둘만 나누던 감정을 사회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관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오래도록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세상도 결혼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에서의 관계 등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평생 동안 내 편이 되어주는 동반자, 또 날 믿어주는 가족들은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 꾸리는 가정은 비전을 공유하고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믿어요.

김영희(27세, 미혼)

결혼하여 나만의 가족을 만들어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자녀들과 같이 교회를 다닐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기도 해요.

이준영(25세, 미혼)

부모님을 통해 좋은 가정의 모델을 발견한 청년들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비전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혼을 통해 만든 가정은 곧 세상의 문화로부터 독립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터전이 됩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처럼 결혼 후 새롭게 얻게 되는 경험과 은혜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직장도 들어가면 처음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직을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결혼도 똑같아요.

김성철(39세, 기혼)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기찻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히 공부, 수능, 대입, 졸업, 취직 등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어버린 인생의 중요한 구간들을 지날 때, 기찻길이나 트랙처럼 정해진 길 위에서만 달리게 되는 비유들을 찾게 됩니다. 결혼 역시 적어도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그 비유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젊은이들은 결혼의 좋은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그 축복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동시에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점점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결혼 그 자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인식이기도 합니다. 2018년 2월 모 결혼설계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억 308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자체만으로도 식장 예약, 사진 촬영, 드레스를 비롯한 의상 일체 대여 등 다양한 지출을 수반하며,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집, 혼수 등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의 수입으로 온전히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해요. 소비생활도 저축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부모님도 많이 챙겨드릴 수 있고. 아버지는 계속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건 부모님 생각이죠.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한솔(31세, 미혼)

결혼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가정을 꾸리는 거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두 가족의 만남이잖아요. 시월드라고 해서 남편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를 챙겨드려야 하고.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서열을 따지고, 자녀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헐뜯는 걸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가족을 만들어야 하나 싶어요.

김가연(26세, 미혼)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택했고, 힘들게 쌓아올린 삶의 테두리를 굳이 무너뜨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에 기인한 두려움도 비혼의 흐름을 가속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명절 때마다 쏟아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는 수백 건에 달하고, 가정의 불화나 싸움은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혼을 선택한 청년들은 상기의 여러 문제점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혼만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이 과연 무엇인지, 혹은 그 행복감을 굳이 추구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열매를 위해, 그 많은 역경과 닥쳐올 위험들을 굳이 감내해야 하나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마치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죠. 결혼을 통해 얻는 행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만, 그 축복만으로 인생이 의미를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충분히 배려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을 하는 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박배려(35세, 기혼)

성경을 읽어 보면 결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결론을 짓기가 어려워요. 남녀가 합하는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하기도 했죠. 결혼이든 비혼이든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바울(26세, 미혼)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축복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수십 년간 각자 살아온 인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과 나머지 절반 넘게 남은 삶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요. 다만, 세상의 모든 일처럼 준비되지 않은 결혼, 충분한 고민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혼은 하나님께서도 ‘좋았더라’하고 바라보시진 않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비혼을 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시대는 점점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젊은이들은 그 시대에서 안정적으로 현실과 탐험하기를 배워왔습니다. 타협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비혼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계도가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존중과 그 선택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에게 코웃음을 치기보다, 결혼이라는 문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온전히 축복하는 마음과 또 언젠가 내게 다가올 축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찾아가서 나누는 기쁨

기쁨의 50일(The Great 50 days)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1년 주기로 재현한 것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줬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회력 절기 중, 부활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관하여 우리가 잊어버렸던 소중한 전통인 ‘기쁨의 50일(The Great 50 days)’을 소개하고, 영락고등부가 이번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예배의 중심-부활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초대교회로부터 언제나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인 주일(Lord's day)에 예배를 드리게 된 데에는 예수님이 부활사건을 보다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맞이하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의 ‘작은 부활절(little Easter)’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게 되면서 매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으로서의 주일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백현준 전도사
고등부



① 백현준, 이건희 전도사가 인창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승택, 김성현,

김성현)을 방문

② 영락유헬스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방문해 함께 기도

2

기쁨의 50일(The Great 50 days)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부활주일 하루에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주일뿐 아니라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의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The Great 50 days)’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지 않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무릎 꿇는 것을 금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고 누리도록 격려했습니다.

영락고등부의 기쁨의 50일, 찾아가서 나누는 기쁨

영락고등부는 이번 기쁨의 50일을 맞이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도 섬김이 필요한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제하는 방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주위 친구들 중 섬김 대상자를 선정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했고, 교사 및 교역자는 고등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근처로 찾아가서 학생들과 교제함으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보성여자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유헬스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호원고등학교, 인창



고등학교,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의 학교를 방문해 각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눴고, 안산, 용인, 성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등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찾아가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진행된 학생들과의 만남은 고등부 공동체 안에 참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줬습니다. 주 일에 교회에서 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일대 다수로 교제하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깊은 교제가 어려웠는데,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있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근처에 가서 시간 제약 없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 개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은 끝났지만,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은 '수요미식회(수요일마다 학생들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임)'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통해 찾아가서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가서 나누는 기쁨의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날**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열어갈 다음세대가 베드로부로부터 2018년 여름수련회를 시작했다. 이번 호에 이어 다음 호에도 각 부서의 여름 사역 내용을 연재한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교회야~ 마을로 가자’

7월 7일(토)부터 8일(주일)까지 50주년기념관 유치부실에서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다. ‘교회야~ 마을로 가자’라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사랑을 전하신 것을 뜻한다. 예배는 서예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드려졌으며, 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아부 친구들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씩씩한 주님의 아이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취재 강은진 기자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대학부 하계수련회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워터슬라이딩하는 학생들

대학부 하계수련회 ‘사귐의 공동체’

지난 7월 4일(수)부터 7월 7일(토)까지 대학부(부장 박홍준 장로)는 설악 새동선수양관(속초)에서 ‘사귐의 공동체(요일 1:3-4)’라는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의 강사로 광교 푸른교회의 강은도 목사(합동)를 초청하여 ‘20

대 시절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내와 감사로 통과하기’를 말씀해 주셨다. 신앙적 성숙과 공동체적 영성 등을 주제로 20대 청년들에게 쉽고 재밌는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넘어 교회와 우리 각 삶의 공동체 속에서 20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에 참여한 벗님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삶 속에서 공동체적 영성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공 대학부

〈베드로부 간증〉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베드로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설지은
베드로부 29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다닌 지 어언 20년이 되어가지만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교회에는 꼬박꼬박 출석했지만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많았다. 재수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실감 하던 중에 베드로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수련회에서는 공동체 게임, 집회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날 저녁집회였다. 강사로 초빙된 오병훈 목사님께서는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이란 크게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약한 내 자신을 보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믿었던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 부끄러웠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내 상황, 감정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회에 오지 않았다면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내게는 이번 수련회가 그동안 너무 멀어졌던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신 베드로부의 많은 선생님들, 학생회, 로벤, 선배님들 그리고 흥만우 목사님과 오병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베드로부 벗님들이 수련회에서 했던 간절한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나가기를,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벗님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안녕**



70여 명이 참석한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영락기도원 본당에서

나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만수 선교사
브라질



조금씩

빌라 프루덴찌 빈민촌 주민회장 시두 집에 갔다. 아버지는 평생 도둑으로 살았고 엄마는 그가 어릴 때 도망갔다. 형은 아직 교도소에 있다. 이곳 지역의 사실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마약 개단 두목과는 약 40년 절친한 친구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빌라 프루덴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위를 했다. 초등학생들이 모여 마약을 하는 것을 보고 교사와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했다.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주면 어린아이들이 언젠가 총을 가지고 와 자신들을 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시두는 어린이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서인지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 그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약과 술에 많이 빠져있는데 이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는 친구인 마약개단 두목의 사업(?)과 상충되는 생각이다.

시두 형제는 조그마한 땅을 구입한 후, 돈이 생길 때마다 벽돌, 시멘트, 나무 등 재료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는데 이미 30년이 지났다. 이제 일 년 내에 완성될 것 같다. 조그마한 집이지만 좁혀 앓으면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집이 완성되면 예배장소로 사용해도 좋은지 조심스럽게 물으니 그가 흔쾌히 좋다며 옆에 있는 조카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부탁했다.

만난 지 아직 짧은 기간이라 그를 너무 많이 믿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두가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면 마약개단 두목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곳 빌라 프루덴찌가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시두가 작은 불꽃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¹

1.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하여서 만큼은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그네의 온갖 비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불꽃이 나를 훤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략) 그러나 나의 모든 고집이 꺾어지거든 그렇게 하신 분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과 그 고뇌와 그 아픔을 낳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만 헛세).

아~

브라질 상파울에서 시행하는 바울선교회 주최 선교훈련 중 일주일(1월 29일~2월 2일) 집중강의를 했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루카스 부부, 미세우 부부는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 함께 사역했다. 제안 부부는 파라과이, 오스카는 베네수엘라, 데보라는 인도네시아 등 모두 장기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

후보생 중 데보라는 14세 때부터 선교에 꿈을 갖고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볼리비아에서 선교했고 4개 국어를 구사한다. 강의시간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 참 총명한 선교사다. 그런데 웬지 초조하고 불안하다. 조그마한 것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기도 한다. 질문도 은근히 공격적이다.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다. 모른 체하고 강의를 계속했다.

마지막 날 강의 중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를 소개하며 잠시 우리 집 이야기를 했다. 식사 중 조금 만 말을 해도 아버님께서 “남자 녀석이 왜 여자처럼 말이 많냐” 꾸중을 하셔서 나는 말없이 식사만 했다고 했다. 우리 아버님은 큰아들하고 항상 대화하셨고 셋째인 나와의 대화는 평생 한 시간이 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고 불만은커녕,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그럼 지금 목사님의 아들과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들과 친구처럼 늘 대화하고 때론 아들에게 한 시간 이상 상담해 줄 때도 있다. 물론 저절

로 된 것은 아니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짧게 답해 주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엇인가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

헤어지기 전, 그녀가 처음 보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시고, 목사님도 참 멋지세요~” 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² 그녀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신 것 같다.



브라질 선교사 후보생 합숙 훈련

2.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작년 10월 10일 폐절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목만수 선교사 모습

가장 비참한 사람

먼저 부족한 사람을 염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도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지난 10월 10일(화) 브라질에서 2분의 1의 폐 절제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깨자 어디선지 헨델의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음악인가 의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환자실 직원이 잠시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할렐루야를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수술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다. 수술도 잘되고 경과도 좋아서 불과 5일 만에 퇴원했다.

브라질에서 수술하려면 많은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를 걱정하신 분들이 모금한다고 하셨다. 감사하지만 사양했다. 먼저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는데 조속한 시일에 병원비가 모두 마련됐다.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분들께 감사를 넘어 송구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최적의 시간에 경험많고 실력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하게 하셨다.

수술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³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참으로 멋진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완벽하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가?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9:3)고 하셨다.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 것 같아 기쁘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만남**

3.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1서 1:1).

삶 속에서 전도하기



김재을 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선교부 전도차장



을지로3가 지하철역 전도현장

전도의 의미

전도의 사전적 의미는 “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전도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인의 일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전도는 증인의 삶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1:1,3) 그리
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
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에 대해 증인이 되는 삶으
로 투영되어야 한다.

우리 영락교인들이 전도훈련을 받아 삶의 현장인 가정
과 직장,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
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의 삶이다. 성령
의 감동을 받아 훈련으로 준비된 교인들은 학원, 병원, 군
대, 경찰,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의 역할을 아
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

물류·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도 틈틈이 시간을 내
어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 번은 부평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59세 되시는 분께 복음을 전하여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의 거래처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3년
간 질의응답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
고,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을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전도가 이 시대에 요구되

는 전도라고 생각된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왕과 그의 백성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삶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았다.(창 41:38)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다리 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권능의 하나님, 영원한 구세주를 알고 그 나라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다.(단6:26)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서기관과 대제사장, 유대인들과 로마인, 그리고 왕들 앞에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과 일치되는 바울의 삶으로 인해 왕들이 변하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

이 땅의 믿음의 증인들

일사 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 철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사랑을 실천하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외치신 청빈 겸손하신 한경직 목사님,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또 다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진실한 전도는 무엇일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

첫째, 습관적 훈련과 습관적 전도를 하는 일상의 삶이다.

“훈련 중 훌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시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 없는 전도는 훈련되지 못한 군인이요 전투시 걸림돌이 된다.

둘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래에서 섬겼고 감옥에서 조차도 죄수를 섬겼고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 속에서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애굽과 느브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셨다.

셋째,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다. 즉 거룩한 성품이다.(창 1:27) 거룩하심으로 향하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8가지 덕목을 갖추는 자기 훈련이다.(벧후1:3~7) 이러한 훈련으로 전도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추수꾼이 될 수 있다. 준비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전도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일으키신다.

선진들의 믿음을 본 받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 **만남**

북녘땅의 변화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2018 북한선교대회를 마치며



김주현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찬양예배 중에 특송하는 자유인과 북한선교부 임원들

‘북녘땅의 변화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북한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공식적인 기간은 6/20(수)~6/24(주일)이었지만 직전 3주에 걸친 북한동포사랑기도회(6/6, 13, 20, 수요기도회), 송악기도처 방문(6/16), 영락포럼(6/20) 등이 모두 북한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들이다. 3월부터 매주 이어진 준비회의를 포함하면 약 4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2018 북한선교대회를 되돌아보며 주요 행사를 정리해 본다.

사전 행사 및 주중 행사, 6/16~6/23

우선 공식 대회기간 전인 6/16(토)에는 송악기도처를 방문하여 북녘땅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어린이 10명, 성인 115명 참석). 6/3(주일) 베다니광장에서 진행된 참가신청이 당일 2부 예배 후 조기에 마감(80명)되었으나 추가 희망자가 많아 인원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복음통일을 향한 영락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다.

6/17(주일)에는 당초 북한선교대회 계획에는 없었던 태영호 공사의 특강이 있었다(오후 2시 30분, 기념관 604호). 200여 명의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북한의 종교 실상과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체험과 날카로운 분석에 근거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외용 종교활동도 선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최근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6/20(수) 수요기도회 1·2부는 6일과 13일에 이어 북한동포사랑기도회로 모였는데 3주간 6회의 기도회 시간 중 북한선교부 임원, 자유인 청년, 자유인예배부 교사, 대학부 하베로기도회 팀원의 간증이 각각 있었다. 같은 날 오후

- 북녘 땅의 변화와 영적 부흥을 위하여
북한선교대회를 사용하소서
1. 이 민족 가운데 북한과 북음통일을 위한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음통일이라는 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민족의 동반자로서 영락교회와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2. 이 땅의 3만 2천여 명의 자유인을 북음통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또한 다음세대가 이어지는
동인세대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2일 금요심야특별기도회 중에 북음통일을 위한 통성기도 모임

1시에는 본당에서 2018년 제2차 영락포럼이 개최되었다.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 1, 2층을 거의 채운 가운데,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의 특강은 본인의 북한선교사역과 노동 교화소 경험을 토대로 관련 영상과 간증과 함께 이루어져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북한선교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6/22(금) 금요심야특별기도회(8시)는 기존의 북음통일기도회(7시)와 통합하여 진행되었다. 설교자와 제1,2 남녀 선교회/전도회 회장의 인도로 북음통일, 북한주민, 자유인들을 위한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인원은 약 520명이었다.

북한선교주일, 6/24

6월 24일 북한선교주일예배로 드려진 1~5부 예배에서는 ‘복된 성도, 복된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잠언 11:10~11)이 선포되었고, ‘복음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 낭독 순서가 있었다. 이 공동기도문은 각 교육부서 예배에서도 함께 낭독되어 전 교인이 한목소리로 기도하는 의미 있는 순서가 되었다. 성도들은 ‘탈북자유인 선교 지원(하나원 등)’과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목적헌금을 드렸고,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각각 뉴코리아국제학교와 자유인예배부 찬양대가 봉헌송을 담당했다.

베다니광장 행사는 오전 8시 김응락 장로 순교비 앞에서 북한선교부 지도교역자와 임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9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는데, 아동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관심은 역시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퀴즈, 중보기도, 공모전 관람 등을 모두 마친 후 상품을 받게 되는 북음통일 체험전에 모아졌다. 부모님과 함께 많은 인원이 모여들었고, 부모와 자녀가 북음통일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자유인예배부가 합심하여 준비한 북한음식체험



북음통일 체험전에 줄을 서있는 어린이들

코너도 성황을 이루었다. 예년과 같이 ‘속도전떡’이 제공되었다. 3부 예배 후에는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광장행사장을 방문하셨는데 이 코너에서는 자유인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 주셨다. 광장 중앙의 간이무대에서는 2~3부 예배 후 자유인 청년들과 하베로기도팀의 찬양공연이 있었다.

전시 형태의 행사로는 북한선교부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역사자료 전시와 북한선교부 사역 소개, 아동부 공모전이 있었다. 북한선교부 20년을 주제로 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상영된 부스 좌우 각각 9m(높이 1.8m) 정도 길이의 계시벽에 역사자료와 사역소개 자료가 연도별, 사역유형별로 사진과 설명이 담긴 현수막 형태로 전시되었다. 아동부 공모전은 미리 제출된 그림, 만화 그리기, 사행시 짓기 등의 작품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코너였다.

북한선교대회의 피날레라 할 수 있는 이날 찬양 예배에서는 북한선교부 지도목사이신 한현수 목사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예년과 달리 영락교회 내부 목사님이 말씀을 담당한 것은 북한선교부 20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 제작된 영상을 함께 보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포함되었다.

북한선교부 임원과 실행위원,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선교사역을 섬기는 분들과 자유인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특송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울림이 되었으며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복음통일, 소망과 기도와 행동

북한선교대회는 매년 이어지는 연례행사지만 이번 대회는 북한선교부(센터) 설립 20주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기도 속에서 준비되었고, 그만큼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준비 과정 및 대회기간 내내 북한선교부 임원과 많은 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기도 – 3주간의 릴레이 금식기도 포함 – 드린 것 자체가 은혜였고, 자유인들과 함께한 많은 과정들은 복음통일을 미리 체험하는 산 경험에 되었다. 교육부서가 ‘원포인트’ 설교는 물론 공동기도문의 형태로 함께한 것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복음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사역은 하나님이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고, 북한선교부는 이러한 사역을 20년간 조직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음통일이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가시권 밖에 놓여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또한 그 계획에 우리가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행동한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믿는다.

끝으로 이번 북한선교대회의 전체적인 조율과 방향설정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북한선교부의 교역자 분들과 부장 장로님, 대회 준비와 기간 내내 함께 힘을 합친 북한선교부 임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날**



개관 80년을 맞아 '내가 사랑한 미술관' 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하나님이 빚으신 세상, 화폭에서 만난다

여름방학과 여름휴가는 영락 교우들이 모처럼의 쉼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지친 영혼을 믿음으로 새롭게 할 기회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휴가지 대신 미술관을 찾아보면 어떨까. 8월 말까지 들러 볼만한 서울과 부산, 그리고 강원도의 주요 미술관의 전시회를 소개한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전

우리에게 미술관으로 낯익은 덕수궁 석조전(별관)은 1936년 착공하여 1938년 3월 이왕가미술관으로 문 열었다. 올해가 바로 이왕가미술관 개관 80주년이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개관 2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열리는 전시회가 '내가 사랑한 미술관' 전이다. '근대의 걸작' 90점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 작품으로 휴버트 보스의 <서울 풍경>(1898, 캔버스에 유채, 31x69cm), 박고석의 <범일동 풍경>(1951, 캔버스에 유채, 39.3x51.4cm),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1960, 캔버스에 유채, 146x98cm) 등 구한말과 한국전쟁 무렵의 우리네 삶의 풍경을 보여주는 빼어난 작품

들이 포함되어 있다. 10월 14일까지, 전시회 관람료 성인 3,000원(덕수궁 입장료 포함).

전시회 못지않게 주목할 부분이 덕수궁의 역사적 의미이다. 덕수궁은 근대사의 영욕이 엇갈리는 곳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1년 간 머물면서 현재의 덕수궁인 경운궁 전각을 복구, 중축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여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은 경운궁 돈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창덕궁으로 옮겼다. 경운궁은 이때부터 고종의 궁호를 따서 덕수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9년 1월 덕수궁 함녕전에 머물던 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덕수궁은 주인 없는 빈 궁궐이 되었다가 1933년에 일반인에게 공원으로 공개되었다.



전시작 중 김세용(1922-1992) 작 ‘이향
(離鄉·사진·국립현대미술관 소장)’에는
“2000년 영락교회 증”이라고 쓰여 있다.
푸른 바다, 흰 뜻배를 원경(遠景)으로 한 그
림 중앙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과 중절모를
쓰고 흰 두루마기를 걸친 남성이 짐 보따리
를 놓고 앉아있다. 어린 동생을 업고 곁에
서 있는 소녀도 한 가족으로 보인다. 1940
년대 작품으로만 알려진 이 작품은 이유가

무엇이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삶을 핍진하게 그려낸다.

김세용 화백은 신의주 출신으로, 신의주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나라 없는 백성의 비애를 담은 그림 <유랑하는 백의인(白衣人)> 때문에 일경에 연행되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1947년 동화백화점 첫 개인전을 열고 1957년 프랑스로 건너가 과감한 추상 작업도 보여주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를 일제의 유물이라고 혹평하고 미술협회나 단체 등 제도권 화단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작품 활동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림을 기증하게 된 사연은 이렇게 전해 진다. 김 화백의 선친이 한경직 목사와 가까웠고, 김 화백도 생전에 한 목사를 따랐다.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난 김 화백의 작품과 자료를 우리 교회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산과 물, 하늘을 온 몸으로 느끼며 입장하도록 설계된 원주 뮤지엄 산 미술관 사진제공 뮤지엄 산

원주 뮤지엄 산 미술관

뮤지엄 산(SAN)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의 오크밸리리조트 안에 있는 미술관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지은 이 미술관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산상(山上)’이라는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자체가 작품인 이 미술관은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스톤가든, 제임스터렐관에 이르기까지 700m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관의 백미는 제임스터렐관.

제임스 터렐(1943~)은 독실한 케이커교 가정에서 태어나 영성과 침묵을 중시하는 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그의 작품은 산과 사막, 들판 등 광활한 자연환경과 빛을 활용해왔는데, 뮤지엄 산의 제임스터렐관 역시 영적인 빛을 마주하는 ‘빛으로의 여정’을 이끈다. 스카이스페이스, 스페이스디비전, 호라이즌룸, 웨지워크, 간츠펠트 등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터렐관에서는 창조의 영광을 마음 속 깊이로부터 찬양하게 된다. <찬란한 석양(TWILIGHT RESPLENDEENCE)>(2012)라는 작품이 설치된 스카이스페이스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다. 해 질 무렵 방문하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옴을 경험할 수 있다.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2012)이 설치된 호라이즌룸은 절대자를 향한 빛의 제단을 형상화했다. 뮤지엄과 제임스터렐관 모두 매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제임스터렐관은 10:30부터 30분 단위로 입장하며 매회 28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박물관, 미술관, 가든과 제임스터렐관을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권은 성인 28,000원, 소인(초중고생) 18,000원. 제임스터렐관을 제외한 갤러리권은 성인 15,000원, 소인 10,000원.



1 2

1 2 양구 박수근미술관은 화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친 화강암 질감을 원용한 건물 외벽이 인상적이다. 사진제공 박수근미술관

양구 박수근미술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성들, 아기 업은 엄마, 머리에 임을 인 여성들... 단순한 형태와 선으로 낯익고 그리운 모습을 형상화한 박수근 화백. 우리 교회 본당 건물의 주요 소재인 화강암과 같은 재질감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이름 없고 가난한 서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담아냈다.

박수근은 간절한 기도로 얻은, 사무엘 같은 아들이었다. 3대 독자로 내려오는 집에서 박수근의 부모는 떨만 셋을 두었다. 조부는 며느리를 새로 얻어서라도 손주를 보자고 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 이었던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아들을 간구했다. 특히 어머니 윤복주의 기도가 애절했다. 하나님은 박수근에 이어 두 아들을 더 주셨다(이상, ‘아내의 일기’ 중). 비록 가난했지만, 이처럼 기도로 얻은 아들 박수근은 인간의 선하고 진실된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는데 온 삶을 바쳤다.

강원도 양구가 고향인 화가를 기념해 양구읍에 박수근미술관이 생긴 것이 2002년이다. 깊은 산 속 작은 도시에 박수근 화백의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을 놓치기 아쉽다.

사전 예약을 하면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상설예약 체험프로그램은 휴관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시행하며,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판화로 만나는 박수근’(우드락판화, 종이판화), ‘석고 방향제 만들기’, ‘박수근 마띠에르 체험’, ‘박수근 드로잉 스템프’ 등이 있다. 매달 2, 4주 토요일은 6세 이상~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즐토 프로그램’(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예약할 수 있다. 8월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선착순 마감). 전시와 프로그램 참가 예약은 033-480-2655. 개관 시간 매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3,000원 초중고생 2,000원



지난 6월 부산 을숙도에 새로 문 연 부산현대미술관은 외벽에 자생식물을 가득 입힌 '수직정원'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은 부산시가 올해 6월 16일 새롭게 문을 연 미술관이다. 부산의 서쪽, 낙동강 한 가운데 ‘강 속의 섬’인 을숙도에 자리 잡았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퇴적물이 형성돼 만들어진 섬으로, 1980년대까지도 갈대밭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요즘은 살아 있는 생태공원으로 변신했다.

생태공원 안에 건립된 미술관답게, 가장 눈에 띠는 ‘작품’은 미술관 외벽이다.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아티스트인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Vertical Garden)>을 설치했다. 제목 그대로, 바닥이 아니라 벽에 만든 정원이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아비뇽 등 주요 도시 수십 곳에 설치된 작품이다. 을숙도 부산 현대미술관 ‘수직정원’에는 175종의 국내 자생 식물을 심었다. 예술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8월 12일까지 전준호, 정혜련, 강애란의 <아티스트프로젝트 I, II, III>과 <미래를 걷는 사람들> <사운드 미니멀리즘> 등 영상과 소리, 빛을 이용한 국내외 작가들의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이 이끄는 사회 변화 속에서, 자연과 예술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묻는 자리이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어린이 예술도서관도 갖추고 있다. 을숙도 갈대밭이 테마인 실내를 구성했으며, 기획 서가와 열린 서가, 책의 세계, 우리 동네 작가, 바깥 세상 등 9개 주제로 서가를 운영한다.

여름휴가와 방학 시즌에는 전시 관람을 돋는 도슨트(해설) 서비스도 운영된다. 8월 12일까지 평일 (화~금)은 오후 3시 1회, 주말(토, 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회이며, 미술관 2층 로비에서 출발한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다. 관람료 무료(기획전 · 특별전 등 일부 전시 유료). 051-220-7352. [만남](#)

취재·사진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2018년 「만남」 설문조사

“1021분에게 귀 기울여 봅니다”

감동과 변화, 세대간 소통 그리고 주님의 뜻,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만남」 설문조사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 각 구역장님을 포함하여 권사님들의 설문 조사로 마무리 하여습니다. 전체 1,021분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찬양대, 2남선교회, 교구 구역장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역대 가장 많으신 성도분들께서 참여 하셨으며 세대별, 부서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높은 정확도를 위하여 A타입(일반성도), B타입(청년층), C타입(구역장,권사)으로 구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리 최판곤 집사(홍보출판부 서기)

1. 설문지 조사 - Type A형

응답자 분포 – 일반층

구 분	응답자(명)
고등부	35
청년부	46
2남선교	20
일반(광장 배포)	173
찬양대	41
전체	315

교우들의 소중한 의견

-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을 「만남」에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영락교인이 우선이지만 다른 교회 및 일반인도 구독하게 됨으로 초신자를 위한 내용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청년 및 초등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 부서별 “영락교회에 바란다.” 같은 코너를 만들어 모바일을 이용해서 글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1번이 아닌 교회내의 소식이 그때그때 추가된다면 더욱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 간증과 성시를 꼭 실어주십시오. 제작은 잘 하시는데 배부방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셨음. 젊은 층은 모바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만남」을 제작하는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인쇄물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처럼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재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입 A형 설문분석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가정과 교회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만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만남」 제작에 대한 평신도 참여의 필요성을 다수의 성도님이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건강한 기독교적 삶의 영위에 도움 되도록 설문조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설문지 조사 - Type B형

응답자 분포 - 청년층

구 분	응답자(명)
청년부	124
대학부	135
전체	259

교우들의 소중한 의견

- 취업, 신앙,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2030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와 (새로운)배포 방식이 필요합니다.
- 기독교적 결혼관, 직업관 등등 2030세대를 위한 소식지

필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내용 축약 필요.

-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열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 2030세대의 주요한 고민들, 관심사에 대해 더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타입 B형 설문분석

대학부와 청년부 구성원에게 기존 「만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잘 모르겠음 44.4%)하고, 설령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만남」을 접한다 해도, 펼쳐보지도 않는다거나 조금 읽고 버려질 것(관심 없음 37%, 조금 있음 33.5%)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만남」이 대학생들과 청년 스스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43.1%)’와 ‘손쉬운 참여 및 의견 제시(28.2%)’이며, 이것을 실현할 적합한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웹과 애플리케이션 활용(42.3%)’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타이틀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42.9%)’과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을 보장(30.7%)’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설문지 조사 - Type C형

응답자 분포 - 구역장, 권사

구 분	응답자(명)
교구별	447
전체	447

교우들의 소중한 의견

• 「만남」을 교구/교역별로 나눌 때 일하는 인원이 너무 부족함.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몹시 큼. 또한 구역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많은 「만남」을 다시 봉사관으로 옮겨야 함. 너무나 비효율적임. 버려지는 「만남」도 너무 많음. 제작비용이 아까움.

- 일반 성도들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을 위한 공간(시나 신앙 간증, 수필 등)이 「만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 너무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다. 유머 코너, 탈무드, 카툰 등 다양한 면을 실었으면 좋겠음.
- 최근에는 자녀 뿐 아니라 거의 전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접근성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통한 접속방식을 추천합니다. 더 많은 독자들 확보하려면 기존에 발행하던 「만남」과 더불어 스마트폰으로도 좀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링크 공유, 「만남」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제안합니다. 더욱 바람은 output을 확인하는 고민을 해주시길.
-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겁고 평신도가 읽기에는 개인이 쓴 내용이 길다. 좀 짧게 각 부서마다 지면을 할당해서 채운다면 소식이 잘 전달될 것 같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만 구역장이 「만남」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 배포방식은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장이 구역식구의 필요에 따라 원하시면(거동불편 등) 가져다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나온 구역장들의 것(엄청난 양)과 남은 것을 기념관에서 목양실까지 가져다 놓는 것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 좀 더 우리 교회의 역사적 일들이나 예화를 넣어주셔서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함양시켜주세요. 예전의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달력과 함께 「만남」을 배포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꼭 개선해 주세요. 달력도 교회 주요 장소에서 배포해 주세요. 지금 같은 「만남」 제작형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커뮤니티 환경으로~
-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교회 신문으로 대처, 필요하신 분만 했으면..., 「만남」을 안주면 서운해 하고 갖다드리는 관심 없어 한다. 먼 거리를 걸어 다니기 힘들고, 사람도 없고, 등산하는 것 같이 힘들다.
- 내용 선정에 있어 교인과 너무 동떨어져 출판인들만 참여하니 소속감이 적고 호응도가 낮을 수 밖에… 종이 재질 등 월간지 자체로서는 흡잡을 데가 없지만 「만남」은 그 내용의 목적을 교회 소식지에 중점을 두지 말고 가정으로 배부되는 만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보여지도록 신경 써 주시길. 매달 형식적인 내용이나 소식만 전하지 말고 전도용으로 쓸 수 있게 종이 질을 조금 낮게, 얇게 했으면…
- 교회 소식, 제직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 등을 일반 신도들도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하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사정과 구체적인 결정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입 C형 설문분석

「만남」을 배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역식구들의 「만남」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이 떨어지고(27%), 거주지 출입 제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배포가 어렵다(37%)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희망하는 배포 방식은 교회 주요 장소에 배치대를 추가(37.5%)하거나 주일 예배 후 광장에서 직접 배포(33.8%)하는 방식을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만남」을 배포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에 그 결실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 배포방식을 벗어나 주로 교회에서 배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 기존 배포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작되는 「만남」이 2030세대 독자층을 잘 반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거나 ‘아주 그렇다’는 의견은 합산해도 전체의 8%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30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물음에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 조성(39.5%)과 자유로운 참여 및 활동 보장(23.3%)을 가장 많이 선택해주셔서 타입 B형 설문에 참여한 2030세대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설문조사 후기

이달로 535호를 맞이한 「만남」은 교회内外에서 그동안 세대 간, 부서 간, 교역자, 성도들에게 소통의 도구(Communication Tool) 및 창구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만남」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장, 취재 및 촬영기자와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헌신과 각고의 노력은 「만남」을 영락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만남」에 보내주신 성도분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은 앞으로도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과 선교 매거진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권위와 관례가 아닌 진심과 믿음으로 「만남」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많은 의견을 언제나 소중한 가르침으로 간직하고, 「만남」의 변화를 위한 지도와 편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족의 공감, 청년들의 고뇌, 구역장님들의 헌신”, 「만남」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끝으로 설문조사 통계를 위해 밤샘작업으로 헌신하여 주신 류정현 집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결혼준비교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하여 상담부(부장 지동춘 장로)의 결혼준비교육팀에서는 하나님 이 만드신 결혼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이해를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들과 결혼생활의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위기들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시 키는 교육을 통하여 가정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결혼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를 위해 결혼의 의미, 부부의 역할, 삶의 계획 등과 같은 결혼준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며 새 가정 을 이루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6월 30일(토)에 봉사관 405호에서 2018년 상반기 마지막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 한 9쌍의 예비부부들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는 대화의 실제를 배우고 성경적 가정의 원리와 교육을 통하여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 도했다.

예비부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돋는 결혼준비교육팀(팀장 염성희 권사)에 서 봉사하는 고은수, 김정민 권사는 ‘가정사역의 시작인 결혼준비교육을 받는 예비부부들의 축 복된 출발을 위해 자원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교육장 꾸미기, 다과 준비, 안내 등 요소요소 필요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교육 모습

한 부분을 돋는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교회와 외부장소에서 결혼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및 타 교회 예비부부도 참여가 가능한 결혼준비교육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6시에 봉사관 405호에서 실시하며, 7월과 12월은 휴강하며, 다음 교육은 8월 25일에 있다. 결혼예식 전 일정에 맞는 1일(4시간) 참석해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란다.

결혼준비교육 2018년 일정 안내

일시	시간	장소 및 문의
매월 마지막 토요일 8월 25일, 9월 29일, 10월 27일, 11월 24일	오후 2시~6시(4시간)	봉사관 405호
7월, 12월	휴강	상담부 02-2280-0171-2



결혼준비교육팀

결혼안내

본 교회 각 교구의 교인 중 예비부부들에 대한 혼례(결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조부(부장 김명철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며 새 가정을 이루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전반적인 상담으로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조부의 혼례팀(팀장 김선애 권사, 김소희 지도권사) 실행위원 등 4인 1조로 구성된 10개의 결혼안내조는 경건한 결혼예식 예배의 진행을 지도함과 동시에 하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결혼식 안내와 봉사로 섬기고 있다.

결혼예식 당일 안내 모습



경조부 혼례팀 안내조장 간증

경조부에서 결혼예배 안내를 돋습니다



황문남 권사
서초교구
경조부 혼례팀 안내8조장

저는 영락교회 혼례예식의 제반 사항을 안내하며 하객 입장 및 순서를 돋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륜지대사인 엄중한 결혼식을 올림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하객들 모두가 편안하고 경건한 예식이 되도록 결혼안내팀은 4명 1조가 되어서 성실하게 예식 전반을 도우며 축복하는 기쁜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결혼

분위기 또한 외부 결혼식장과는 확연하게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예식을 올리는 새 가정을 볼 때마다 저 또한 교회에서 혼인했던 당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툼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했던 선서와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례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넘겨서 지금의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일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두 자녀를 출가시킨 이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보답으로 결혼식 안내 봉사가 안성맞춤일 것 같아서 이 봉사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취업난, 주택난, 독신주의 등으로 결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서로 돋는 배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7~28a)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사치요, 구속감을 느끼는 일로 여겨지는 가 됩니다. 예전에 비해 결혼식이 현저히 줄어든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부는 서로 돋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돋고 아름다운 한 지체로 성숙해지는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뜰에서 신앙으로 맺어진 부부들의 모습을 자주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이루는 영락 짧은이

마지막으로 찬송가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를 가사를 옮겨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가사처럼 우리 영락 짧은이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예식 안내 및 규정

- | | |
|----|--|
| 안내 | 본 교회 봉사관 1층에 위치한 행정처에서 본 교회에서 혼례(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랑과 신부에게 결혼규정 안내와 결혼 날짜 추첨을 통한 결혼 신청서 접수, 그리고 결혼예식 진행 절차 상담 및 안내,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
| 대상 |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할 경우,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준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회 출석 교인으로 신랑, 신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다른 한쪽이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세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락하며 결혼 서약은 본 교회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영락교회 교인 등록이 되어야 한다. 신랑, 신부 중 한쪽만 본 교회 세례교인이고 한쪽은 타 교회 세례교인일 경우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 교회 등록 교인이라 해도 결혼 서약서에 구역장 또는 교직확인 책임자의 날인이 없을 때는 결혼 접수를 불허하며 결혼은 당사자 모두 초혼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결혼을 허락을 위해 신랑·신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주례 | 결혼 주례는 본 교회 각 교구 목사님의 집례를 통해 엄숙하고 경건히 거행된다. |
| 장소 | 보통은 아담한 선교관에서 결혼예식을 진행하지만 하객이 500명이 넘을 경우는 넓은 본당에서 진행한다. 300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과 선교관 지하 제1, 2식당에 피로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

유의사항

축하 화환과 식장 내의 꽃길 등은 일절 금하며 교회 내의 금연, 예식 종료 후 퇴장 시에 색종이 뿌리기, 폭죽, 딱총 사용 등을 일절 금한다는 내용을 청첩장에 협조 사항으로 공지해야 한다. 예배 중 비디오와 사진 촬영 담당자는 강단 위에서 촬영하면 안 되며 본 교회는 폐백을 불허한다. 성결하고 엄숙하며 검소한 결혼예식이 진행되도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락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조부 혼례(결혼) 홈페이지와 결혼예식 안내문 및 규정을 참고한다. <http://page.youngnak.net/eden/wedding>

결혼 예식안내 문의 (행정처봉사관 1층 02-2280-0224)

결혼 준비교육 문의 (상담부 02-2280-0171-2, 010-3080-6791)



<http://page.youngnak.net/eden/wedding>

2019년 1~6월 결혼 날짜 추첨 일정 안내

일정 및 장소

2018년 7월 28일(토) 오전 10시

봉사관 505호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보금자리

-어린이들의 포근한 울타리로… 내년에 설립 80주년 맞는 영락보린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야고보서 1:27)

1939년 한경직 목사에 의해 신의주에 세워진 ‘영락보린원’은 당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고아 ‘복순이’를 돌봐준 것을 시작으로, 어려웠던 시절 부모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별히 내년에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보린원’은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 없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80주년 감사음악회’를 기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동안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6월호 ‘영락사회복지재단’ 소속기관 ‘영락노인전문요양원’ 탐방에 이어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김병삼 원장을 인터뷰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영락보린원’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영락보린원(서울 용산구 소재)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1939년 신의주에 설립한 아동복지시설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난 79년 동안 약 1300여 명을 자립시켰으며, 지금도 67명의 따뜻한 정을 그리는 아이들에게 아늑하고 포근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보린원의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입소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주로 우리 원에 들어와 생활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유기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이곳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부모의 이혼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일해야 하는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 폭력 등이 그 집안 내의 사적 생활로 묻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아동 학대의 경우로 분류되어 부모와 분리되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 그다지 좋은 기억을 가지지 않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보린원 원장을 하시며 어렵거나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독 보린원 아이들에게는 모두들 약간의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번씩 부모와 분리 경험을 해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 감싸 달라는 뜻은 더욱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또한, 요즘 아동 생활시설은 예전과 달리 통합시설화 되어 가는 것 같아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 중에는 지적장애아도 있고, 격리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과 잠시 헤어져 있는 아이 등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이 원에서 함께 지내게 되니, 아이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고 몇몇 아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곳도 가정과 똑같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유·초·소년부, 중·고등부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님들과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나 이곳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라, 아무래도 잔소리도 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삼촌이나 아빠의 친구(?) 같은 느낌이라 그런지 여기서 못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스스럼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자의 역할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부모나 삼촌처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족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고등부는 교회 내 특활부서에서 각기 다양한 부서활동을 하게 되어, 아이들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보린원에서는 몇 살까지 지낼 수 있나요? 또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요?

여기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있을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이곳을 나가려해요. 이곳을 나가면 주로 ‘자립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서울시에는 남자 자립관 1곳, 여자 자립관 2곳, 그리고 ‘자립형 그룹홈’(서울시장 명의의 생활주택) 20곳이 있어서,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 됩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자립관으로 연계를 안내하고, 24세까지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일종의 애프터서비스인 거죠.

아이들의 졸업 후 진로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약 60~70%는 대학에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를 더 하고, 나머지는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취업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함께 자란 서로의 정이 있어서, 나가서 한 명이 자리를 잘 잡으면 친구나 후배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참 뿌듯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졸업생 아이 하나가 용산 ‘아이파크 몰’의 제법 큰 커피숍 매니저가 돼서, 후배들을 정직원, 파트 타임 등으로 고용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현대백화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아이들이 힘을 합쳐 잘 모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밖에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분 중 사업을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부모를 그리워 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분리된 아이들이라 마음속에 우울과 분노를 품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뜻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의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주로 엄마가 아이를 맡긴 경우는 다시 만나는 아이들이 종종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맡긴 경우는 사실 다시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장으로 계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제가 1992년부터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실 퇴소 후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린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다시 만난 아이들은 생각 외로 잘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곳 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시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종종 찾아와서 대화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한 50대쯤 되신 분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셨어요. 보린원 출신인데 퇴소 후 여기에 처음 왔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가족에게 숨기고 사는 게 늘 마음의 짐이 되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고아원 이야기를 보다가 솔직히 고백하니, 자녀들이 이곳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퇴소 후 혹시 교회를 계속 다니셨는지 여쭤봤더니, 짧게 “아니요!”라고 답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신양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며 유년기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도와줬기에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심어준 신앙의 뿌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비록 방향의 시기는 있을지라도…’

영락교우 중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사회봉사 의무 때문에 오겠다고 자주 문의하는데,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는 정중히 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칫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작은 상처를 받을까 우려가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부터는 자원봉사를 받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오시면 안 되고 사전에 보린원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현재 필요한 인력과 인원을 조율한 후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전에는 여러 단체에서 오셔서 선물 놓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사진은 못 찍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년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에 영락보린원을 설립한 지 80주년이 됩니다. 신의주에서부터 고아들이 목사님과 함께 월남하면서 현재의 영락보린원이 되었지요.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 없이 현재까지 오게 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교우 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80주년 감사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세미나를 개최해서 한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를 향해 보린원이 나갈 방향을 고민하고, 한 목사님의 발자취를 찾아 그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싶습니다. **만남**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반환점을 돌아서며



6월 마지막 주, 반환점을 돌아서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6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 본당에서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첫 날, ‘가까운 길, 먼 길(출 13:17-18)’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며 연단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전했다. 26일(화)에는 ‘얼음과 누림(창 30:22-24)’을, 27일(수)에는 ‘많은 것을 맡는 비결(잠21:4-8)’을, 28일(목)에는 ‘내가 네게 이를 때 까지 (마2:13-23)’를, 29일(금)에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사18:9-11)’을 각각의 주제로 하여 말씀을 전하였다.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인 30일(토)에는 교회 학교 각급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며, 위임목사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단1:17-21)’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서며 앞으로 맞이할 6개월 동안도 영락교우들의 영적 성숙, 가정의 평강, 교회의 발전, 나라의 안정, 복음통일 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수련원 말씀묵상기도 고요함 속의 주님과의 만남



6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2일로 영락 수련원에서 ‘말씀묵상기도수련’이 열렸다. 이번 수련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20명이 참여하여 유재경 목사의 인도로 말씀묵상기도와 섭리 신앙에 대한 강의 그리고 예배와 성찬으로 진행되었다. 수련 참가자들은 말씀묵상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침묵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했다.

수련에 참가한 이선미 권사는 “수련에 참가하여 성경을 반복하며 읽고 묵상하다보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말씀묵상기도수련은 성서를 단순한 마음으로 되뇌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하반기 화요예배는 9월 4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말씀묵상기도수련은 10월 25일(목)-27일(토), 11월 22일(목)-24일(토), 12월 8일(토)에 영락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공 영락수련원



신앙아카데미 스피치 특강 ‘하와이, 와이키키’ 반복연습 추천



지난 7월 8일(주일) 1시, 신앙아카데미(부장 박종민 장로)가 주최한 여름특강이 봉사관 지하에서 있었다. 강사인 前 MBC아나운서 정보영 대표(부산 수영로교회 집사)가 신앙인의 언어생활을 주제로 한 이번 스피치 특강에는 약 38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 대표는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 신앙인에게 ‘말’이란 단순한 의사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진정성)과 눈(애정, 열정)을 통해 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제공 신앙아카데미

은퇴권사회 감사예배 ‘다비다의 섬김’



지난 6월 28일(목) 11시 본당에서 열린 친교부 주관 감사예배는 은퇴권사 8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홍노 장로(친교부 부장)의 인도로 시작한 경건회는 이봉순 권사(친교부 차장)의 기도, 은퇴권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황광용 목사의 ‘다비다의 섬김(행 9:36~42)’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경건회를 마쳤다. 은퇴권사회 이풍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교부에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섬겨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공 친교부

상반기 금요권찰공부 종강, 하반기 개강은 9월 7일 예정

상반기 금요권찰공부가 종강을 맞아 지난 6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각 교구별 장소에서 종강예배를 드렸다. 각 교구의 지도목사는 ‘복된 성도, 복된 나라(잠 11:10~11)’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참석한 구역장과 권찰, 지도권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누며,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방학중 심방준비회는 7월 22일(주일)과 8월 19일(주일)이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선교부, 교목간담회 개최 8개 학교 교목 한자리에 모여



지난 6월 21일 영락교회가 설립한 3개 학교법인 산하 8개 학교의 ‘제2차 교목간담회’가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 주관으로 5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열렸다. 지난 2월 열린 제1차 상반기 교목간담회에서 하반기 학원선교를 검토하기 위한 이 모임이 합의된 바 있다.

영락·대광·보성학원 등 3개 학교법인 소속 8개 학교 교목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예배와 학원선교대회 및 성단절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교 예배가 살아야 학원선교도 산다는 공감대 위에 이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학원선교대회는 단순한 학교 소개를 넘어 학원선교 상황을 소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천해가기로 하였다. 한편 Joy Together 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성단절 행사에는 학생들이 교회 뜰을 밟게 함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임대순 목사가 이번 간담회의 기획을 맡았고, 학원선교팀(팀장 신영순 권사)이 진행을 도왔다.

제공 선교부 사진 권현일 전도사

한국장로교여성대회 개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지난 6월 22일(금) 치유하는교회에서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렸다. 500여 명의 기독여성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로교총연합회(약칭 한장총)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 주최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대회장 김순미 장로의 개회사와 인도, 박인자 장로(전 한장총 위원장)의 기도, 여전도회 연합찬양단의 찬양과 채영남 목사(전 한 장총 대표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채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로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개인과 가정, 사명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여성이 되어 한국교회 부흥과 조국의 평화를 위해 적극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2부 강사로 나온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사회현상과 교회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에 이어 대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폐회기도로 마쳤다.

제공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6월 3일~7월 1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6월 3일	송은주	03	000
	이희진	15	029
6월 10일	최병택	09	022
	박근순	16	051
	김동연	06	020
	이경순	04	031
	이경숙	02	000
	김경희	02	000
	전현숙	10	012
	이행	10	012
	최근호	01	000
	김은숙	06	051
	소상기	16	003
	이태현	07	000
	김주엽	01	000
	박승희	17	000
6월 17일	김양경	01	000
	홍창진	09	053
	정인경	07	027
	박정미	05	061
	이민재	04	006
	김영주	07	064
	이도현	08	027
	현병의	05	051
	윤순자	05	051
	김성수	06	03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6월 17일	전희천	16	099
	신승남	08	000
	임도철	06	042
	허영섭	07	031
	김명숙	06	042
	이순숙	07	031
	박채연	11	000
6월 24일	배경순	14	000
	박철호	06	065
	박순옥	02	071
	안애령	09	011
	정수영	06	065
	최옥화	03	000
	김정민	13	000
	진완석	04	023
	구현모	07	051
	박태상	08	000
	전다엘	03	037
	이송주	07	053
	김부남	11	000
	정희숙	11	000
	정진홍	05	016
6월 28일	유금옥	12	016
	홍원표	06	000
	한수영	12	041
	유정민	06	000
	이경진	10	000
	윤효진	13	045
	강유승	13	023
	진유찬	04	030
7월 1일	오강린	01	000
	조영임	09	030
	이숙자	07	000
	변영숙	06	000
	박태숙	16	020
	김귀현	02	000
	이향림	18	000
	김수현	10	000
	정애화	07	000
	문영수	12	02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1일	이승근	06	000
	전연희	02	010
	한종원	16	020
	김형섭	04	067
	조아영	06	000
	조한솔	08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1일	김재희	01	000
	방혜지	17	000
	임진아	06	000
	이재희	06	038
	이상훈	06	000
	함태양	03	020

세례·입교 축하

★ ★ ★

세례·입교를 축하합니다

세례·입교일(7월 1일)

★ ★ ★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심호섭	10	000
	조주영	15	042
	성진재	04	041
	정유정	08	045
	송원빈	16	040
	서정신	11	009
	안미경	10	057
	방수아	90	888
	문윤희	03	034
	이주영	80	888
세례	길안순	13	040
	박용희	14	065
	송명진	14	063
	신수종	07	021
	권혁천	06	038
	김승유	17	054
	신임철	80	888
	김진관	14	064
	김새리	15	036
	이희원	09	052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심임옥	09	058
	최동권	03	013
	신정숙	03	013
	손차남	04	034
	양은영	02	033
	김경희	09	059
	이정옥	10	067
	곽인숙	10	028
	김기삼	05	038
	김국병	06	011



영락역사자료

6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정용락 은퇴안수집사 (인천교구)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1987년 김윤국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0건- 1982년~1983년 박조준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8건- 1983년~1991년 한경직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6건- 1990년~1994년 임영수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9건- 1981년~1998년 기타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1건- 기독교상담교육시리즈 과학과 신앙 제8집 일반음성테이프 1건- 1988년 4월 29일 김계용 목사 은혜의 잔치 선택과 섭리 외 일반음성테이프 2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973년 이전의 모든 사료

- 교회의 창립자인 한경직 목사의 정년은퇴년 이전의 사료
- 교회예배당 신축 및 증축현황
- 그 외 1973년 이전의 모든 사료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8月

1일(수)~3일(금)	산상기도회 1차
5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8일(수)~10일(금)	산상기도회 2차
9일(목)~11일(토)	한마음 한가족 가족수련회
12일(주일)	광복주일
12일(주일)~16일(수)	청년부 하기 선교봉사
26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새가족환영회



야곱의 우물가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이번 호의 영락화랑은 크리스천작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희망하는 고등부 2학년 김하은 학생과 조미혜 학생의 그림을 실게 되었다. 앳되고 여려 보이는 여학생의 단호한 눈빛과 꼼꼼히 묘사한 비둘기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림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이 읽혀진다. 멋진 믿음의 작업을 통해 치열한 삶의 고민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생생하고도 솔직하게 보여준 두 학생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다.

〈김하은의 그림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단어를 외우면서 등교하고 8시간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 바로 학원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나를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 아니다, 역으로 물어보자.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자신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내게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아간다.



〈조미혜의 그림 이야기〉: 그림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을 뜻하고 조각으로 그려진 장미는 ‘나’를 표현한 것이다. 조각으로 그려진 장미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죄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내 빛과 하나님의 빛을 노란 보석과 파란 보석으로 그려 내 빛과 하나님의 빛이 만나 십자가가 되어 있는 뜻의 그림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창조질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각종 극단적 상대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매우 어려운 요즘 기독청년들에게 ‘성경적 결혼’은 절실한 주제입니다. 이에 목회자 관점에서부터 청년들 관점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결혼’에 관하여 다각도로 다뤄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만남」에 관한 교우 여러분의 설문조사(48~51면)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호부터 소명을 받은 신임 편집진도 교우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오직 예수께서 기뻐하실 모습만을 향해 끊임없이 개선해가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의견

- 테마별 디자인이 내용을 돋보이게 하며 감성적 사진과 일러스트가 따뜻한 느낌을 잘 살려서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김태영 안수집사(고양·파주교구)
- “1021분에게 귀 기울여 봅니다”(48~51면)에 실린 독자의견

▶ 독자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8월호
통권 535호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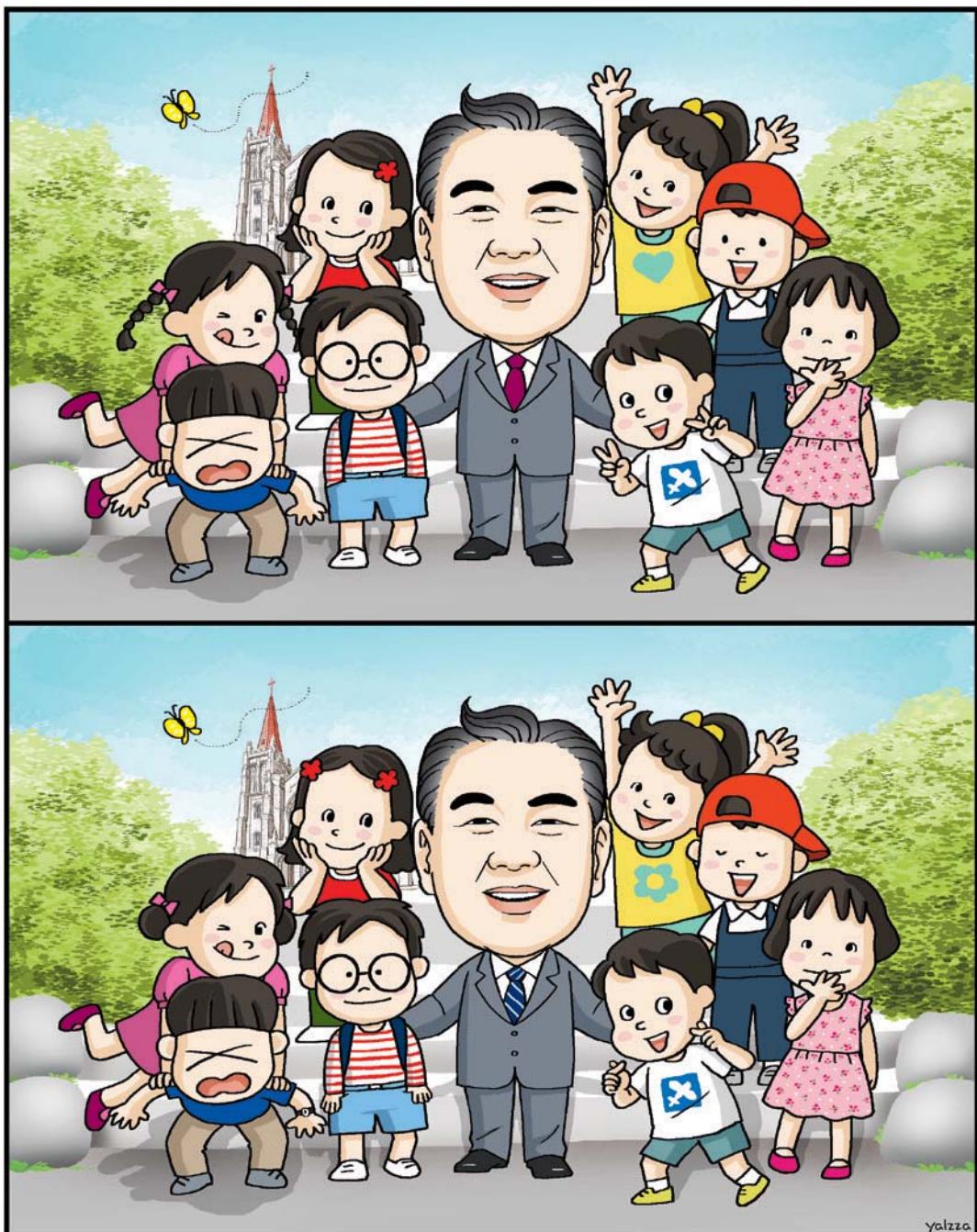
만남편집소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광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다른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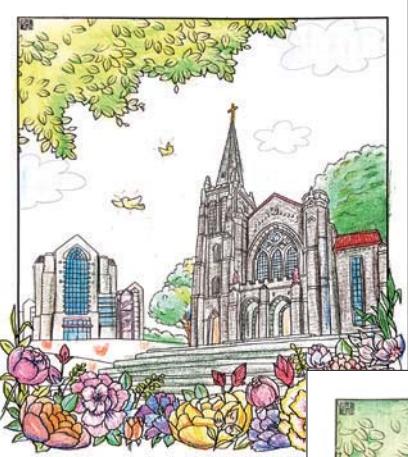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김운성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개구쟁이 아이들과 사진 찍는 일이 쉽지 않네요. 두 그림에는 8군데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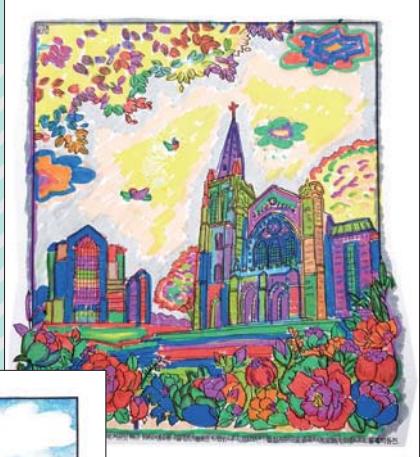


>> 6월호 컬러링 콘테스트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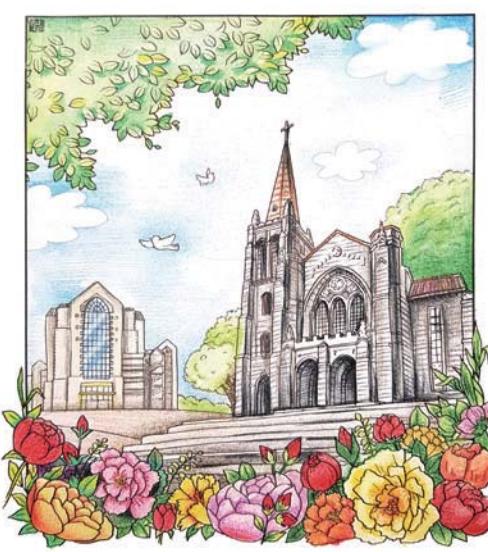
지난 6월 「만남」에 실렸던 컬러링 콘테스트 응모작 중 우수작 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표현하는데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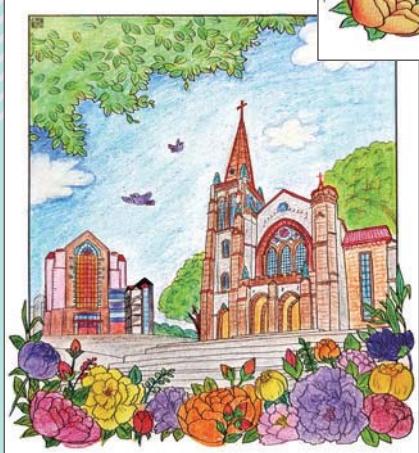
박수아(소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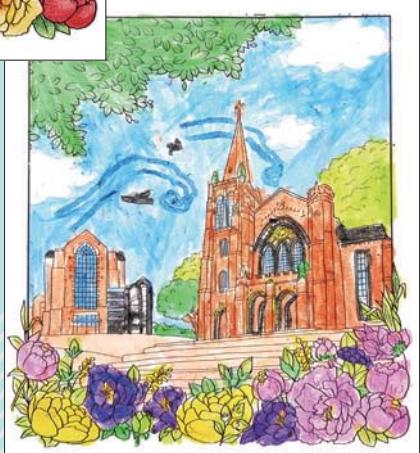
박임이(중구·용산교구, 92세)



이상진(대학부)



장기옥 권사(성남·분당교구)



이서윤(유년2부)

영락화랑



Make your own
way in Jesus

김하은(고등부 2학년)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하나님의 빛 조미혜(고등부 2학년), 종이 위에 색연필 채색, 530×380cm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7)